

영어교육 55권 1호 2000년 봄

목표언어 지수를 높이기 위한 인터넷 활용

신 경 구
(전남대학교)

Shin, Gyonggu. (2000). The use of the Internet to raise the target language index. *English Teaching*, 55(1), 157-175.

The distance of typical L1 and the L2 environments is interpreted as Target Language Index (TLI), which is again divided into Target Language Environment Index (TLEI) and Target Language Utilization Index (TLUI). TLEI of a language learner shows how much s/he is exposed to TL. Located in a TL situation, her/his TLEI is close to 100%, which works positively for TL learning. However, TLEI is not controllable. TLUI measures how effectively a teacher makes his/her students utilize TL. TLUI is considered near zero if TL is not used in classrooms. A language teacher's role is to raise TLUI. This paper also shows how the Internet raises TLUI in my college English class. Students are required to write emails in English, find and read authentic materials from homepages, write in discussion boards, and do other activities using the Internet. TLI was originally devised to evaluate the usage of the Internet in language classrooms. However, this device is useful in evaluating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teaching methods, theories, language programs and software by analyzing how effectively they raises the level of TLUI.

1. 외국어 교육 이론의 변화

1940년대를 시작으로 50년 및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충분한 문형 연습, 듣기 및 발화 연습으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Carroll, 1963; Larsen-Freeman, 1986). 그 결과로 당시로서는 첨단 기계인 녹음기를 갖춘 대형 언어실습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설치되었고, 문형연습을 통한 외국어 학습이 유행하게 되었다. 행동주의 영향은 언어 능력을 세분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누는 기능분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은 외국어의 네 가지 기능을 나눠서 '강독, 회화, 작문' 등으

로 나눠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능분리의 경향으로 한국인 교수는 독해를 외국인 교수는 작문과 회화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듣기는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와 및 구조주의적 관점은 1970년대에 들어 빛을 잃게 되고, 대신 인지주의에 근거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으로 대체된다. 의사소통 상황이 중시되고 수동적으로 단순한 자극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말하기 연습보다는 상황 속에서 창조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기계적인 학습으로 언어학습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류로, 언어학습은 문장자체의 구사 능력과 아울러 문화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총체적인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외국어 교육의 주류를 이룬다.

Krashen(1985)은 단순한 반복적인 연습보다는 언어 자료 입력의 양이 언어학습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본다. Doughty(1987)는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학습자 사이에서도 이뤄질 수 있지만, 물론 모국어화자와 학습자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 능력이 내재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학습은 언어를 단순히 학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언어학습자가 실제적인 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의시간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언어학습을 시킬 수 없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Long, 1980).

협동 언어학습(collaboratory learning)에서는 의사소통 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언어 학습을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인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 하나 하나가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한다(Bruffee, 1993). 학습자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배우려는 외국어에서 언어인지적인 발달이 이뤄진다. 언어학습은 사회활동으로부터 따로 떼어낸 활동이 아니라 자연스런 사회적인 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외국어 교육 이론의 추이의 뿌리에는 학습 활동이 목표언어를 실제상황에 가깝게 사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목표 언어 지수(target language index)를 제안하고, 이를 다시 교수가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을 환경지수(environment index)로 교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용지수(utilization index)로 나누어서 목표언어의 활용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구해 볼 것이다.

II.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의 변화

영어교육 이론은 영어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또 영어를 통한 문화적인 협동활동만이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전남대학 영문학과와 사례를 들어 언어학습이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어교육의 현상을 살펴본다.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교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영어 읽기 자료를 등사해서 나눠주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영어교육의 전부였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시중에서 또는 자체 교재를 출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어학연구소에 실습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육 자료와 교수방법에서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 단순 번역을 지양하고, 녹음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 중심의 교수방법에 따라, 영어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교수연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자신감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한계에 이르러, 교재와 실습시설에 의존하는 70년대의 교육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강의실에서는 문법과 번역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대학 안팎에서는 학생들의 영어교육 열기를 대학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깊어졌다. 1980년대 초에는 교양영어가 2학점 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실습실 운영을 전담하던 어학연구소는 존폐위기에 빠지게 되어 강독 2시간에 실습 1시간으로 조정하여 겨우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대학자율이 강조되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교양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크게 바뀌면서 대학영어 수강반과 수강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비하여 영어관련 교수들은 1991년 교양영어위원회를 만들고, 교과서의 체제를 개편하는 등 몇 가지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영어 담당 교수의 자원이 늘어난 것밖에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해 현재는 교과목의 운영을 모두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표 1
전남대 교양영어 운영의 변화

	필수 여부	교재	교수방법	평가	주관 부서
50년대	필수	등사물	번역/설명	번역	영문과
60년대	필수	등사물	번역/설명	번역	영문과
70년대	필수	자체 교재	번역/오디오실습실	번역/토폴식	교양과정부
80년대	필수	자체 교재	번역/비디오실습실	토폴식	어학연구소
98년까지	선택	자체 교재	번역/비디오실습실	토폴식	영문/영교과
99년부터	선택	교수 재량	번역/작문/회화	교수 재량	영문/영교과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 이래, 계속 수강생의 감소를 겪게 되어 현재는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정도의 수강생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영어 교과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특정대학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많은 대학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¹⁾

표 2
교양영어에 대한 만족도

	부산지역 소재 대학					전남대		
	A	B	C	D	E	계	96년	98년
매우 만족		3	2	1	1	1	1.7	12.4
대체로 만족	34	59	28	29	21	34	28.1	44.8
대체로 불만	57	38	51	58	50	51	43.1	30.4
매우 불만	9		19	12	28	14	17.7	12.4

대학 영어교육이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그 대안을 찾아 학원으로 개인지도로, 또는 외국에 현지 연수를 나가게 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해외 연수 비용만으로 4조가 넘는 외화가 유출되었다.²⁾

대학의 영어교육이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된 원인은 영어 담당 교수들이 영어교육 이론의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영어교육의 상황을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 보고, 인터넷이 영어교육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이를 영어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III. 영어교육 상황의 변화와 목표언어 지수

1. 목표언어 지수의 정의와 보기

언어학습의 상황에 따라, 영어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

- 1) 여기에 인용된 표 2는 이효용(1996)과 이제까지 전남대학생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조사해온 자료에 근거했다. 표집된 집단은 수가 보통 200명 정도이며 무작위로 뽑혔으나, 98년은 특정한 2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하는 통계는 아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가 필수과목이던 1990년에 비해 현재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현재 교양영어를 대부분 젊은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맡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2) 영어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볼으로써 영어교육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으로 우리가 겪는 손실의 규모를 어렵해 볼 수 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이는 영어관련 사교육비는 3조 4천억원이 넘는다. 이와 맞먹는 비용이 해외학연수에 쓰인다. 그 금액은 4조 5천억원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96/10/08). 96년에는 해외연수와 원어민 교사의 숫자가 95년보다 100%이상 늘어났다. 이 비용에는 트플/토익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학의 외국인 교수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목표언어(target language)가 모국어로 또는 제 2언어로 쓰이는 학습상황으로 영어학습에서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상황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는 학습 목표 언어를 일상어로 쓰는 나라에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목표 언어를 일상어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목표언어를 배우는 상황으로 영어학습에서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으로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목표언어의 환경에 가까운 정도를 목표언어 지수(Target Language Index)라고 이름 붙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신경구, 1999a).

목표언어 지수 정의

가. 목표언어 환경지수(Environment Index): 목표언어 학습 상황이 학습자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지역이나 나라의 상황에 가까운 정도를 가리킨다.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말하거나 듣거나 쓰는 등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높으면 지수가 높아지고, 자기의 모국어를 써도 되는 상황이면 환경지수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EFL 상황의 지수는 0%로 일반적인 ESL 상황의 지수는 100%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목표언어 활용지수(Utilization Index): 목표 학습 상황 또는 교실에서 학습자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목표언어 교육은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일상 활동 또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부추겨서 활용지수를 높여야 한다.

아직은 목표언어 지수는 매우 임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외국어 매체의 숫자와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목표언어 지수를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환경지수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국인과 접촉이 늘어나고, 인터넷, 위성방송, 유선 방송, 영어 신문 등 영어 관련 매체가 일반화되면서 영어에 대한 목표언어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3은 이들 상황에서 영어지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상으로 어렵해 본 표이다.³⁾

3) 다음 논문에서는 목표언어 환경지수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볼 것이다. 예컨대 들어, 1970년에 팔린 영어 신문의 숫자와 현재 팔리고 있는 숫자를 비교하여 잡지에 의한 환경지수를 차이를 구할 수 있고,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구와 현재 영어 방송을 듣는 인구를 비교하면 방송에 의한 환경지수의 차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인 학생의 영어 환경지수 비교

전형적인 EFL 상황	0%
ESL 상황에 사는 한국인과 결혼한 학생	50%
ESL 상황의 기숙사에 사는 한국인 학생	100%
ESL 상황의 기숙사에 한국인과 사는 한국인 학생	70%
ESL 상황의 외국인 가정에 사는 한국인 학생	100%
전형적인 ESL 상황	100%

다음 표 4는 영어 교실에서 영어의 활용지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가상적인 환경지수 표이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영어 수업을 한다면 활용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가 교수를 한다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활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학습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고 동료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지수가 100%에 이르는 못할 것이다.

표 4
한국인 학생의 영어 활용지수 비교

국내에서 일반적인 수업	0%
국내에서 한국어로 한국인 교사의 수업	0%
국내에서 영어로 한국인 교사의 수업	50%
국내에서 영어로 외국인 교사의 수업	60%
미국에서 영어로 외국인 교사의 수업 (한국인 학생 다수)	70%
미국에서 영어로 외국인 교사의 수업 (한국인 학생 소수)	80%
미국에서 영어로 외국인 교사의 수업 (한국인 학생 없음)	100%

앞으로 이 지수를 어떻게 엄격하게 정의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서 환경과 활용의 중요함을 느낌으로 알고 있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강사의 영어수업을 선호하거나, 외국으로 영어 연수를 떠나기도 한다.

다음 표 5는 필자가 가르치는 교양영어 강의에서 목표언어가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눠 비교해 본다. (가) 80년대에는 강의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했으나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으며 현재는 완전히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학생들에게도 역시 90년대에 이르러 영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초기에는 절대 소수의 학생들만 영어를 사용하였다. 영어

를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도 주변의 눈을 의식하여 스스로 영어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영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조차도 거의 모든 활동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학과에서 정한 교재와 진도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부교재를 이용해서 과거보다 약 4배 정도의 읽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표 5
필자가 가르치는 교양영어 수업의 목표언어 활용지수

분 야	80년대	인터넷 쓰기전	현재
교수가 쓰는 언어	0%	60%	100%
학생들이 쓰는 언어	0%	30%	70%
읽기 교재의 양	24%	24%	100%
목표언어 환경 평균지수	26%	38%	90%

2. 목표언어 지수를 높이는 수단

1960년과 1970년대에는 녹음기가 목표언어 환경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디오자료가 환경지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학교의 실습실에도 비디오 시설이 들어섰다. 환경지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영어 잡지를 구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대학이나 학원에서는 외국에서 만든 교과서와 보조자료가 유행하게 되었다.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어민 활용이 목표어의 환경지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급여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하여도 외국인 교사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하나가 모국어 의사소통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한사람이 20명 학생을 맡을 때, 50분 수업에 한 학생 당 주어지는 시간이 2.5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이 외국인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문화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에게 의지하는 교육의 한계가 분명하게 되었다.⁴⁾

4)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들은 해외로 언어 연수를 떠나게 되어 나라의 부가 크게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외국어 교육이론이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협동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 학습자들은 외국어 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언어 환경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학습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느껴서 알고 있다.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어 전공교수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비전문적인 그러나 정확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러한 국부의 유출 현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환경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꼭 인터넷만은 아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과거에는 녹음기와 비디오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위성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컴퓨터, 기타 인쇄물이 다양하게 목표언어에 학습자를 노출시키는 즉 목표언어 지수에 영향을 준다. 이들 여러 가지 대체 중에서 인터넷이 외국어 교육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인터넷이 목표언어를 모국어처럼 가깝게 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많은 외국어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대부분 값이 비쌀 뿐 아니라 현장감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언어 교육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별한 투자 없이 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와 대중매체 등 현실적인 정보를 연결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도 통신 기능은 사람과 사람을 실시간에 가깝게 연결하여 줌으로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와 직접 짧은 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실시간으로 문자대화(chatting)는 물론 컴퓨터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⁵⁾ 홈페이지는 연결에 편리한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을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기와 모든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홈페이지 덕에 빠른 속도로 대중화가 가능했고 결국은 현실적인 외국어 정보의 보고가 되었다. 이제 과거의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거보다 더욱 현장감 있는 외국어 교육자료에 학습자가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교수가 할 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목표언어의 환경지수를 올려주는 일로 기술한다.

외국어 학습 방법의 변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외국어 자료의 입력, 상황학습,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협동 학습이다. 현대적인 언어 학습방법의 공통점은 언어 학습자가 모국어에서처럼 목표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협동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즉 학습의 목표인 언어를 단순히 학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언어학습자가 실제적인 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실 밖에서도 언어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외국어 학습에서는 학습자는 물론 교수에게도 목표언어로 현장감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외국인 교수를 고용하거나, 더 비싼 방법으로 외국에 연수를 떠나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일반화는 외국어 학습의 상황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메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외국인과 목표언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환경지수를 높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을 통한 신문과

5) Realplayer 또는 Media player는 목표언어의 대중매체를 언어학습자에게 연결시켜 준다. Netmeet와 인터넷폰과 같은 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이제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컴퓨터끼리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방송이 역시 일반화되고 있어서 학습자의 노력에 따라 활용지수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다만 생활수단은 학습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뛰어 넘을 수 없는 공간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외국어 상황을 모국어 상황에 가까이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수와 학생이 이를 활용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외국어 학습에서 특히 강의 현장에서 인터넷은 가공을 기다리는 원료와 같다. 인터넷은 교수활동을 현장성 있게 하고 의사소통 활동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오직 교수가 이를 교수활동에 도입할 때에 만 가능한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교수가 현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인 인터넷이라는 구슬을 학교와 교실이라는 실로 꿰어서 학습자에게 보배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손쉽게 인터넷을 대학의 외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우리의 외국어 학습 환경을 모국어 학습 환경에 가까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IV. 목표언어 지수를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1. 인터넷의 활용과 학생 활동⁶⁾

인터넷을 외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인터넷 자체가 환경 지수를 높인다고 보나, 이를 교수활동의 결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아져 목표언어의 활용지수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적용의 목적이다. 인터넷의 활용은 교수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분야를 나눌 수 있다.

초급 기능 활용: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전문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린아이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기능도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읽어야 할 홈페이지 주소를 숙제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교수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아다닐

6) 여기서는 인터넷의 활용 방안과 장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신경구(1999a, b)를 참조하기 바란다. 컴퓨터는 96년에 마련한 펜티엄 133과 98년에 마련한 펜티엄 II 350이 있다. 이중 펜티엄 133은 전남대학 인문대의 웹서버로 쓰인다. 강의실에 컴퓨터가 없을 때를 고려해서 노트북이 있으나 최근에는 강의실에 교수전용 컴퓨터가 들어와 있어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 조교 학생이 두 대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다. 학생 두 명이 일을 도울 때에는 노트북을 활용한다. 강의실에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들어와 있고 행정 투사기가 컴퓨터 자료를 화면에 보여준다. 강의실에는 아직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디스크에 필요한 자료를 담아 들고 간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생들끼리 또는 외국인과의 메일을 주고받게 하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은 방법이다. 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교수에게 하나 더 보내게 하는 것을 숙제로 한다면 학생의 읽고 쓰기 분량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 정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해결하든지 동료 또는 학생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것만으로도 메일을 주고받거나, 필요한 홈페이지를 찾아 학생들에게 과제로 줄 수 있다.

중급 기능 활용: 강의계획서를 홈페이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창조적인 인터넷의 활용이 될 것이다. 강의계획서에 관련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는다면 더 좋은 일이나, 단순하게 계획서만 활용하는 것으로도 중급단계 활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웹편집기를 사용해야 한다. 초기에는 HTML언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쉽게 홈페이지를 편집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나모 편집기가 있다. 연습문제 생성기로는 무료로 공급되는 Hot potatoes가 있다.⁷⁾ 기본 자료는 한글로 만들고 이를 나모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로 바꿀 수도 있다. 접속 속도를 고려하여 그림문서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고급 기능 활용: 교수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고급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남들이 쓰고 있는 ESL학생을 위한 리스트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들이 목표언어 즉 영어로 자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영어로 토론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국제 통화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통화를 과제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펜팔소개, 연습문제, 강의평가 등을 모두 영어로 제시하였다. 읽기 자료는 학기초에는 쉬운 자료를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학생들이 추천하는 글 또는 광우항쟁에 대한 외국인 기자들의 글을 다루는 등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게시판은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올리게 하였고 교수도 같이 참여하였다. 연습문제는 Hot potatoes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였고, 더 단순한 방법으로 빈칸 넣기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다.

교과 진행의 수단으로도 홈페이지를 썼다. 조정된 진도와 강의 내용이 강의계획서에 기록이 되고, 시험 일정 등이 강의계획서에 기록되므로 강의에 빠진 학생들도 수업진행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갖게 된다.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개인 홈페이지 주소 등이 이 명부에 기록되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메일은 교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기말 성적에 반영되었다. 교수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이나 뉴스 기사 등을

7) 필자의 홈페이지: http://gshin.chonnam.ac.kr/class/col_eng/col_eng.htm
 나모 편집기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namo.co.kr/>
 Hot potatoes의 홈페이지 주소: <http://web.uvic.ca/hrd/halfbaked/>

집에서 읽게 하고 이를 다음 시간에 시험으로 확인하고 토론자료로 썼다. 필자는 대학원 학생을 개인 조교로 고용하여 통신문 대답, 준비물, 학생 채점 등으로 교수를 돕게 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의 목표는 영어 사용의 극대화 즉, 목표언어의 활용지수를 높이는 데에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은 인터넷으로 통제되며 억지로 또는 자발적으로 목표언어인 영어를 활용하게 하였다.

2. 교실 안팎의 활동

학생들의 특징이나 숫자에 따라 활동이 달라지나, 강의시간에 문법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없고 활동 중심 학습을 하였다. 선생은 영어를 쓰고 학생은 한국어를 쓸 수 있다. 대부분 다음의 순서로 수업을 하였다. 흐려진 부분은 교실활동이다.⁸⁾

표 6
수업모형



수업 전에는 홈페이지에 주어진 읽을거리를 읽어오는데, 이 읽을거리는 재미가 있거나 광주나 한국과 관련이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활용지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시간마다 시험을 보는 것 역시 활용지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간주된다.

활동지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모든 학생은 주마다 두 번씩 외국인 학생과 메일을 주고받아 그 내용을 교수에게 보내주어야 하였다. 아울러 교수가 제시한 주제로 기

8) 이 표에 나온 것은 99년 분학기까지의 수업방법이다.

시판에 자기 글을 목표로 올려야 하였다. 학기 중에 큰 숙제의 하나로 4명의 조가 합동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개인으로 또 집단으로 평가를 받는다. 활용 지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교수평가도 목표로 실시하는 등, 수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너무 쫓긴다고 불평하는 학생도 있고, 단순히 시험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시, 편지 보내기 등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V.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 대상

필자는 1990년부터 전남대 교양영어 수강생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해 왔다. 약간씩 설문문의 내용이 바뀌기는 했지만, 과거의 설문과 비교반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았다. 1998년 가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해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설문이 주 비교 대상이나, 필요에 따라 1990년에서 1999년 가을학기까지의 설문을 참조한다.⁹⁾

연구의 대상이 된 실험반과 비교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필자에게 주어진 교양영어반을 실험반으로 삼았고, 개인적으로 양해를 얻은 교양영어반 둘을 비교반으로 삼았다. 물리적으로 보면 실험반이 대형 반이어서 외국어 수업에 더 불리한 반이었다. 실험반은 영어학습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읽기 자료를 비롯해서 교수활동의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었고, 읽기 자료에 대한 발표를 영어로 하였고, 과제는 전자우편을 통해 교수에게 보내졌다. 읽기 자료에 대한 토의는 강의시간에 영어로 진행되기도 하고, 게시판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외국인과 통신을 하고 그 결과를 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비교반은 전통적인 교양영어의 수업 방법을 따랐으며, 미리 정해진 읽기 교재로 강독 2시간 및 영어 비디오를 1회 시청하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다.

9) 이 수업을 바탕으로 필자가 지도하는 학생이 이미 석사 학위 논문으로 썼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된 모든 통계는 필자의 것이다.

표 7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구 분	교수방법 및 매체	반수	총 수
실험반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	1	46명
비교반	전통적인 영어교수	2	46명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과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냐는 설문을 통해 두 집단 모두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90%)이 높거나 매우 높다. 유의할 일은 실험반과 비교반의 영어학습 욕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표 8
영어에 대한 관심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1997년	1990년
매우 높다	34.9	33.3	39.6	15.2
높다	39.5	35.6	33.9	31.8
보통이다	14.0	24.4	21.9	38.7
낮다	4.7	4.4	7.3	9.3
매우 낮다	7.0	2.2	8.3	5.1

2. 설문을 통한 반응 조사

1)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강의에 만족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반 강사의 나이가 30대이고 실험반의 강사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실험반의 학생들이 교양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997년의 결과는 필자가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겨울학기 4주를 강의를 하고 얻은 설문 결과로 실험반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긍정적이다. 비교반의 반응은 1990년 및 1996년의 교양영어 설문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¹⁰⁾

10) 두 반의 비교에서 진단 검사와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이는 문항의 구성이 수업활동과 상관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단기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로 실험반의 경우 진단검사에서는 평균 79점이었으나 성취도검사에서는 85점으로 평균이 약 6점 향상되었다. 비교반의 경우 73점에서 77점으로 향상되어 4점의 편차를 보여주었다.

표 9
수업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1997년	1996년	1990년
매우 그렇다	16.3	8.7	25.0	1.7	1.3
그렇다	27.9	10.9	28.1	13.1	19.7
보통이다	32.6	41.3	29.2	29.1	20.4
아니다	18.6	32.6	11.5	38.4	40.9
매우 아니다	4.7	6.5	6.2	17.7	17.5

2) 강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인터넷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반의 학생들의 답변 중에 또 유의할 만한 것은 교수 방법이 유익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97년 겨울학기의 학생들도 69%가 교수방법을, 8.3%가 교과서의 내용을 유익했던 이유로 들고 있다.¹¹⁾ 통계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1990년의 학생들은 교수 방법이 유익했다고 생각한 학생이 9%에 불과했고 강의 내용이 흥미롭다고 한 학생도 18.4%이었으며, 무응답이 55.1%에 이르렀다. 1997년 겨울학기의 학생 반응에서는 69%가 교수방법에 호의적인 반응을 교과서 내용에 8.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8년의 비교반에서는 약간 부정적이기는 하나 매우 반응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반의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교수방법을 긍정적으로 평했는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한 교수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다고 볼 수 있다.

표 10
교수 방법이 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매우 그렇다	32.6	2.2
그렇다	30.2	26.1
보통이다	23.3	30.4
아니다	4.7	26.1
매우 아니다	9.3	15.2

11) 97년 겨울 학기의 학생들은 '이번 교양영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답변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에는 통계수치를 넣지 않았다.

1. 교과서 내용이 흥미롭고 다양 8.3%
2. 교수 방법과 내용이 유익 69.0%
3. 스스로 열심히 공부 21.4%

3) 읽기 자료에 의견

읽기 자료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실제 독서 양의 차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주관적인 조사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실험반과 비교반에 실제로 부과된 독서 양은 표13에서처럼 4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즉 비교반 학생의 독서 양은 실험반 학생의 24%이었다. 아울러 실험반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원하는 사이트를 검색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읽었던 영어 독서 양을 고려하면 실험반의 독서 양이 더 많으리라 판단된다.

표 11
다른 학기에 비해 독서 양이 늘었는지 여부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매우 늘었다	16.3	6.7
늘었다	14.0	17.8
보통이다	30.2	17.8
아니다	23.3	35.6
매우 아니다	16.3	22.2

표 12
실험반과 비교반의 독서량 비교 (8주)

단원 번호	실험반 단어 수	비교반 단어수
1	2,475	1,553
2	1,101	985
3	1,269	1,232
4	5,498	1,547
5	4,208	
6	1,775	
7	1,758	
8	1,859	
9	2,134	
비교반/실험반 (24%)	22,077	5,317

홈페이지를 활용한 반의 특성은 교재에 대한 학생의 관심정도에서도 나타난다. 인터넷의 특성상 교수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읽기 자료를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료를 바꿀 수도 있고 이미 지난 학기에 부과했던 자료 중에서 반응이 좋은 것만을 골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실험반의 학생들은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13
교재의 내용이 흥미롭고 다양했는지 여부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매우 그렇다	20.9	19.6
그렇다	41.9	23.9
보통이다	18.6	32.6
아니다	14.0	17.4
매우 아니다	4.7	6.5

실험반과 비교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작문의 양에서 나타난다. 이는 이메일 및 게시판의 사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실험반에서는 주기적으로 쓰기 숙제를 부과한 것도 작문의 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14
다른 학기에 비해 작문의 양이 많았는지 여부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매우 많았다	46.5	10.9
많았다	20.9	10.9
보통이다	20.9	34.8
많지 않았다	2.3	26.1
매우 많지 않았다	9.3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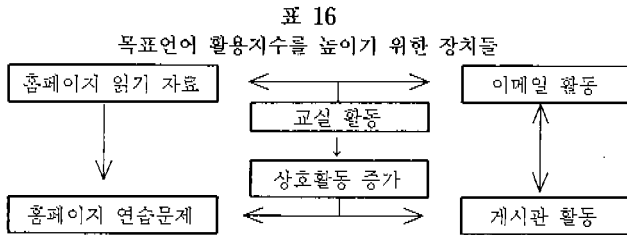
4) 강의 시간 중 활동이 미치는 영향

다음의 두 가지 통계는 인터넷 사용과는 관계가 없고 수업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학생반응의 차이이다. 실험반에서는 목표언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로 발표도 하고 수업에 영어로 참여할 기회가 적극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높이는 것이 꼭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아래의 결과를 내는 데에는 4.2쪽에서 제시된 교수 활동의 내용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15
다른 학기에 비교한 영어로 발표하는 기회 (%)

답 안	실험반	비교반
매우 많았다	71.4	2.2
많았다	14.0	13.0
보통이다	9.3	17.4
많지 않았다	2.3	50.0
매우 많지 않았다	0	17.4

필자의 강의는 우리말 해석과 설명이 거의 없이 이뤄진다. 강의시간 이전에 학생들이 읽어온 인터넷 자료나 영어로 쓴 편지를 활용하거나 다른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등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극대화하는 데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교실 활동의 인위성을 최소화하며, 교실안팎의 활동이 아래의 표에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자연스런 외국어 습득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Ellis, 1994, p. 573).



VI. 결론

외국어 학습 이론은 전통적인 문법 교육에서 구조주의적인 기계적 언어교육을 거쳐서, 현재는 의사소통과 협동을 강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언어 학습은 단순한 문법 지식이나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실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장감 있게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장감 있는 언어학습 상황을 '목표언어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외국어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인터넷의 여러 가지 기능 특히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인쇄매체 및 방송 매체 특히 컴퓨터 통신의 발달은 외국어 학습 환경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외국의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학습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첨단 매체는 목표언어 환경지수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목표언어의 환경지수가 좋아지는 것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미 좋아지고 있는 목표언어 환경을 바탕으로 수업활동에서 목표언어의 활용지수를 높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보았다.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홈페이지, 메일, 게시판, 등을 소개하였다. 활용지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한 활동과 다른 모든 교수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학생들이 현장감 있게 학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가

높을수록 목표언어 활용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활용지수가 높아지면 학습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목표언어 지수라는 개념이 광의의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정하면서 목표언어 지수를 높이는 데에 투자를 한다거나, 외국어 교사를 연수할 때에는 이들이 목표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에게 학생들의 목표언어 활용도를 높이는 교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목표언어 지수는 학교의 외국어 교육의 효율을 검증하는 데에도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목표언어 활용도(활용지수)를 설문 또는 구체적인 활용 양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 방법의 하나이다. 활용도를 높이는 교수활동을 개발하여 연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실 활동 목표의 하나로 목표언어 활용지수를 제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¹²⁾

이번 연구에서는 목표언어 지수(target language index)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화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영어교육 상황의 시대적인 변화를 목표언어 환경지수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서로 다른 교수이론 또는 교수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교실의 차이를 목표언어 활용지수로 계량화함으로써 교수이론이나 교수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신경구. (1999a). 대학 외국어교육과 인터넷 활용. 독일언어문학연구회 99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70.
- 신경구. (1999b). *Target language index and the internet in EFL/ESL classrooms*. <http://gshin.chonnam.ac.kr/research/indiana/index.htm>
- 이효용. (1966). 교양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영어교육연구*, 5, 105-130.
- Bruffee, K. A. (1993). *Collaborative learning: Higher education, interdependence, and the authority of knowledg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roll, J. (1963). Research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 In N. L. Gage (Ed.),

12) 앞으로 목표언어 지수는 외국어교육 이론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표언어 지수를 좀더 계량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언어 지수의 차후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1060-1100). Chicago: Rand McNally Co.
- Doughty, C. (1987). Relating second-language acquisition theory to CALL research and application. In W. F. Smith (Ed.), *Modern media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Lincolnwood,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New York: Longman.
- Larson-Freeman, D. (1986).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 M. H. (1980).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h. D. dissertation. UCLA.
- Shin, G. (1999). Using homepages in teaching college English: with focus on read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1), 35-54.
- Shin, G. and Park, J. (1997). The use of the internet in college English classroom. *Proceedings of the 1997 Korea TESOL conference*, 141-150.
- Warschauer, M. (1997). Computer-mediated collaborativ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Modern Language Journal*, 81(4), 470-81.